
 통일부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4. 27(월)	담당부서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담당과장	서한교(02-901-7160)	담당자	이향아(오디오북, 02-901-7163) 김영경(영문판, 02-901-7166)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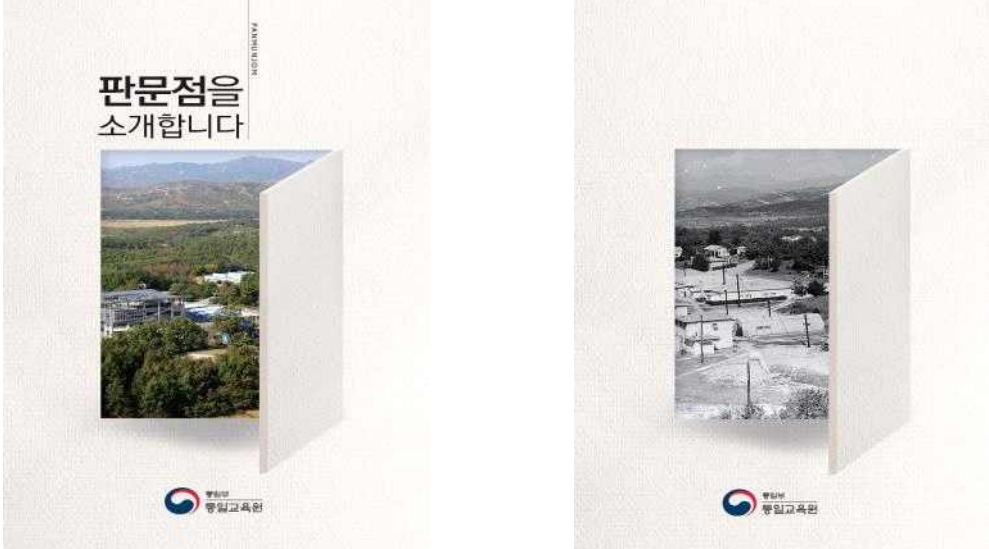


- 판문점 견학해설서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소리책(오디오북)·영문판 제작
- 4월 27일부터 교육원 ‘누리집’ 등에서 배포

- 2년 전 오늘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 지금까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의 아이콘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판문점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 해설서인 ‘판문점을 소개합니다’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4.27)’ 2주년을 맞아 ‘판문점 해설서’ 소리책(오디오북)과 영문판(『Introducing Panmunjom』)을 발간하였습니다.
- 이 해설서에는 판문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남북관계 속에서 판문점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판문점 관광 코스 해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소리책은 시각장애인·노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다른 활동시에도 청취 할 수 있습니다.
- 영문판은 주한 외교 공관 등에 배포될 것이며, 외국인들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 교육원은 이번 소리책과 영문판 자료 발간을 통해 판문점을 찾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판문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판문점 해설서는 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판문점 해설서」 소리책(오디오북) 소개 1부.
2. 「판문점 해설서」 영문판(『Introducing Panmunjom』) 소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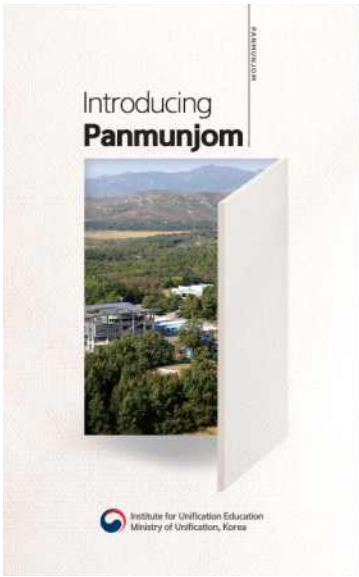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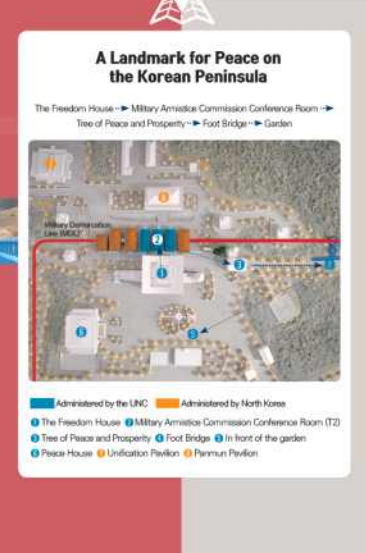

【붙임】 1.

『판문점 해설서』 소리책(오디오북) 소개

<p>목차</p>	<p>『판문점을 소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개요 ○ 판문점 역사 ○ 장벽을 넘어 ‘사람’이 넘나드는 통로 ○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로 ○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관광의 명소 ○ 견학 코스 안내 ○ 자유의 집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공동 기념 식수 장소 ○ 도보다리 ○ 평화를 향한 만남의 ‘다리’가 되다
<p>표지</p>	
<p>내용</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432 1429 738 1704"> <p>판문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전석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SA)의 별칭이다. ●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10월 제25차 본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공동경비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동서 600m, 남북 400m에 달하는 정방형의 공동경비구역이 만들어졌다. ● 초기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경비와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말 그대로의 ‘공동경비구역’이었으나, 1978년 판문점 비무나루 사건 이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이남 지역은 유엔군 측이, 이북 지역은 공산군 측이 분리 경비하게 되었다. </div> <div data-bbox="991 1429 1313 1742"> <p>공동 기념 식수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들이 함께 기념 식수를 한 곳이다. 수종(樹種)은 정권경쟁이 체결된 1953년생 반송(반)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이다. 위치는 고창주영 명예회장이 1998년 소태 뭉고 방북했던 소태 길 옆이다. ● 남북 평화와 화합의 의지표명을 위해 한라산 톨과 백두산 톨, 한강물과 대동강물을 뿌렸으며, 삼자쿠는 북한에 흔한 침엽수, 삼남은 남한의 절로 제작하였다. ● 표지석 문구 ‘평화와 번영을 심다’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절한 것이다. 공동식수 행사는 남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모두 수용하였다. 공동기념식수 후 문 대통령은 “소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심은 것”,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찾아온 북과 남의 새봄을, 그 이후를 소중히 하고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붙임】 2.

『판문점 해설서』 영문판 소개

<p>목차</p>	<p>『Introducing Panmunj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view ○ History ○ A Gateway for People to Traverse Fences ○ From a Military Site to a Place of Dialogue and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 A Landma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Panmunjom Tour Summary ○ The Freedom House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ference Room (T2) ○ Tree of Peace and Prosperity ○ Foot Bridge ○ Panmunjom, the Bridge Towards Peace
<p>표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내용</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411 1496 791 2065">  <p>A Landma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The Freedom House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ference Room → Tree of Peace and Prosperity → Foot Bridge → Garden</p> <p>Legend: ■ Administered by the UNC ■ Administered by North Korea</p> <p>Landmarks: ● The Freedom House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ference Room (T2) ● Tree of Peace and Prosperity ● Foot Bridge ● In front of the garden ● Peace House ● Unification Pavilion ● Panmun Pavilion</p> </div> <div data-bbox="1029 1512 1353 2049"> <p>Foot Brid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iginally, there were two camps for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One is a camp staffed by Swedish and Swiss officers. The camp is situated to the south of the MDL and nearby Panmunjom JSA (to the east of T1, T2, and T3), and there is a wetland between the NNSC camp and the three temporary buildings. The other was a camp located to the north of the MDL for Polish and Czechoslovakian personnel, who were eventually driven out by Nor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Bloc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in the 1990s. The Foot Bridge is a shortcut to T1, T2 and T3 from the NNSC camp, and was constructed on wetland to secure a shorter route. The name "Foot Bridge" refers to a pedestrian bridge, which has come to be called "Dobodot," a literal translation of "foot bridge" in Korean. Recently, this facility on the United Nations' side is also dubbed "Blue Bridge" as it has been painted in blue, the official color of the United Nations. The Foot Bridge has become known for the friendship walk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on April 27, 2018. It was originally 50 meters long and 1.5 meters wide, fairly narrow for two average-sized adults to walk side by side, which may have left the two  </div> </div>